



Art

아트인컬처
July 2017

Special Artist /
볼프강 틸만스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세계

Theme Special /
까르띠에재단 컬렉션, 한국 특별전
아뜰리에에르메스 10년의 전시비평

Artist /
이승조, 파이프의 미학
최만린, 생명의 응결체
안창홍, 입체로 그리는 '얼굴'

Abroad /
샤르자비엔날레
중동의 '파도'

입체로 그리는 ‘얼굴’

/ 채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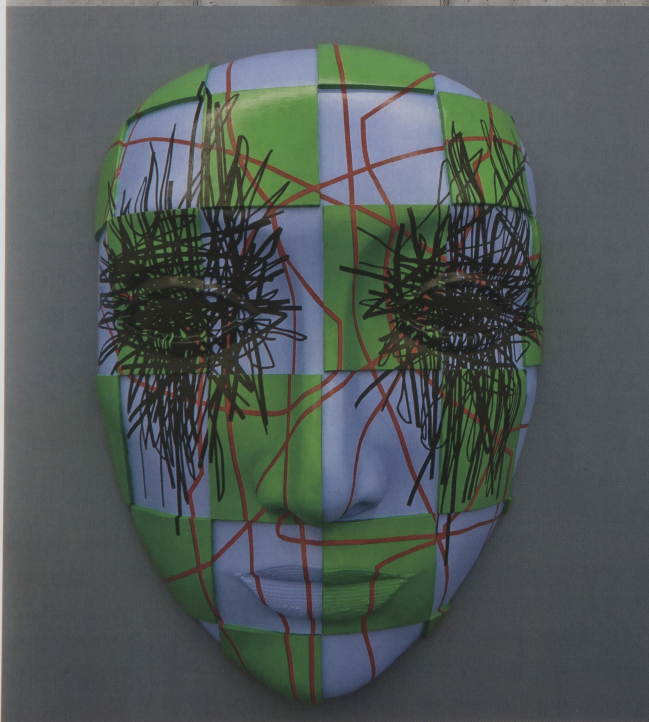
안창홍 / 1953년 밀양 출생. 동아고등학교 졸업. 부산 조현화랑(2017), 아라리오갤러리 천안(2015), 페이지갤러리(2014), 조선일보미술관(2013), 대안공간루프(2013), 갤러리룩스(2012), 가나화랑(2011) 등에서 개인전. <트라이앵글>(아트사이드갤러리 2017), <낯선얼굴>(갤러리룩스 2016), <텔레-비>(현대화랑 2013), <사람야!사람야!>(경기도립미술관 2013), <犬人之愛>(서울아트사이드갤러리 2012),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삼성미술관 리움 2011), <예술가와 가족>(대전시립미술관 2010) 등 참여. 이종섭미술상(2013), 이인성미술상(2009), 부산 부일미술대상(2006), 부산 봉생문화상(1998), 프랑스 카뉴국제회화제 심사위원특별상(1989) 등 수상.

안창홍 회화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얼굴’이다. 작가의 개인전 <눈 먼 자들>(부산 조현화랑 5. 26~7. 16)은 이들 얼굴이 평면을 넘어 3차원의 시공간에 ‘입체회화’의 형태로 잠입한 풍경을 연출한다. 현란한 색상의 물감이 빈틈없이 칠해진 눈 먼 클론의 거대한 군상은 시대의 진통을 드러내는 동시에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예감케 한다. 나아가 이들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우울한 초상이기도 하다. /

화가 안창홍의 35번째 개인전 <눈 먼 자들>은 마치 조각가의 전시장 같았다. 높이 2.1m에 달하는 웅장한 두상 <눈 먼 자들>(2016~17)과 높이 1.6m의 입체 <가면>(2016~17) 20여 개가 운집한 것이다. 등신대를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덩치의 얼굴들 위에 현란한 색상의 물감이 빈틈없이 두텁게 발렸다. 각양각색의 문양으로 뒤덮인 우둘투둘한 얼굴들은 동일한 형태의 이목구비를 지녔는데, 하나같이 눈동자가 텅 비어있어 음산한 기운을 강렬하게 내뿜는다. 안창홍의 그림 속 등장인물들이 내비쳐온 퇴폐미를 떠올린다. 작가의 40여 년 화업 내내 평면 안에 머물던 얼굴들이 한꺼번에 입체로 변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시공간으로 튀어나온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입체회화’로 그려낸 디스토피아

서울에서 안창홍의 양평 작업실로 향하는 길은 혼잡한 도시에서 비껴나 고요한 자연 속으로 숨어드는 길이다. 콘크리트 시설물과 아파트 숲 사이로 한참을 달려서 기차역과 물놀이용품 가게도 지나 마침내 양평의 끝자락에 닿으면, 눈앞에는 산과 물, 그리고 민가 단 몇 채만이 남게 된다. 바로 작가가 머무는 선바위마을의 풍경이다. 대형 입체작업 20여 점이 모두 빠져나간 작업실 내부는 다소 썰렁했다. 텅 빈 벽면을



보니 형형색색의 테이프 조각들이 <가면>의 얼굴 실루엣을 그리고 있다. 곡선형의 가면 위에서 날카로운 직선을 표현할 때 보조 재료로 쓰인 마스킹테이프 자국이다. 단신인 작가가 초대형 가면을 채색할 때 수시로 오르내린 사다리위, 그 큰 얼굴을 치장했던 갖가지 색깔의 아크릴 물감통이 놓인 철제 손수레 등에도 컬러풀한 테이프가 덩어리져 붙은 채 고된 노동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평면이 아닌 입체, 그것도 2m에 이르는 두상의 사방으로 붓을 놀린다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작가는 2016년 1월부터 입체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년 3개월 동안 쉬 없이 매진해왔다. “오전 6시에 기상해서 먼저 아침운동을 다녀온다. 오전 11시경부터 작업에 돌입하는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2시간가량 작업한다.” 그가 평생 지켜온 생활패턴이다. 작가는 2007년에 폐암으로 한쪽 폐의 3분의 1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고도 수술한 지 단 열흘 만에 곧장 작업실로 복귀했다. “한밤중 병상에서 동이 틀 때까지 죽음의 문턱에 닿을 듯한 통증을 느끼며 내가 극복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저 쉽게 그리려다 그림에 힘이 사라져버려 실패하는 화가를 많이 봤다. 신선한 아이디어만론 부족하다. 그림에 작가의 맘과 정성이 온전히 녹아들어야 비로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거다.”

이 화가의 첫 번째 입체작업은 2014년 페이지갤러리 개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원래 연말에 열릴 개인전을 준비하며 근 2년간 맨드라미 회화 연작을 제작하고 있었다. 작업실 앞마당에 텃밭을 가꾸며 검붉은 맨드라미가 내뿜는 “고깃덩어리 같고, 장닭의 벼슬같은” 생명의 기운을 내내 관찰했다. 그런데 그 해 4월 세월호참사가 터진 것이다. 충격적인 현실을 목도하며 그의 맨드라미는 잔악한 비극의 풍경화가 되었다. 여기서 나아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되 인간구실도 못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바로 입체작업 <눈먼 자들의 도시>(2014)다. 높이 1m 가량의 이 연보라색 두상은 작가가 직접 스티로폼을 깎아 만든 원형에 거즈를 씌우고 석고를 발라서 건조한 후에 아크릴 물감으로 작은 점을 수없이 찍어서 완성했다. 비례와 균형이 엉성하며 얼굴의 중심 또한 한쪽으로 쏠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일부러 형태를 일그러뜨렸다. 형태는 있되 눈도 없고 입도 없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돌아섰던 군중의 초상을 단 하나의 일그러진 얼굴 위에 표현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이 시작되고도 탑승자 전원을 구조할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결국 생목숨을 수장시켜 버렸다. 그 꼴이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방송됐다. 우리들이야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아닌가?”

작가는 이번 조현화랑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눈먼 자들>과 <가면>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표현한 군중의 초상에서 개개인의 얼굴을 뽑아낸 버전이라고 말한다. <눈먼 자들>은 작가가 직접 흙으로 빚은 원형을 토대로 거꾸집을 만들고, 그 속에 합성수지를 넣어 두상을 떠냈다. 이들 두상은 구상적인 문양 또는 단어나 숫자를 적어 넣은 것과, 점묘화 기법으로 채색해 상대적으로 추상성을 강조한 것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텅 빈 눈은 드로잉 〈사이보그의 눈물〉(2006) 속 얼굴군상의 인조인간적 특성을 담았고, 점묘화식 표현은 기법적 측면에서 오래된 단체사진을 전사한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화려한 색점을 가득 찍은 회화 〈아리랑〉 연작의 최근버전이나, 맨드라미 회화 연작 〈뜰(슬픈 여름)〉(2014)과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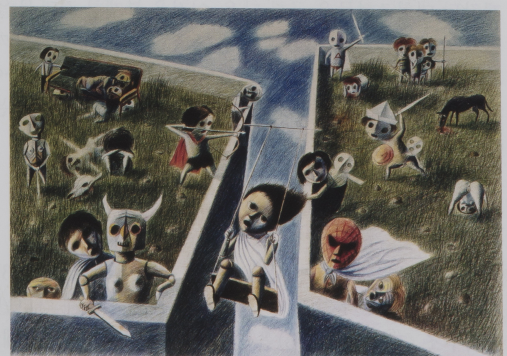
붓질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한 두상의 이미지는 조각이 아닌 ‘입체적인 회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창홍은 작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에 끈질기게 주목해왔다. 그 속에서 역사의 폭력에 희생당한 자들, 소비주의의 욕망에 잠식당한 자들, 자본주의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변변치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을 캔버스 위의 주인공으로 초대해왔다. 작가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야만의 시대’를 고통스럽게 성찰하면서, 스스로 지켜왔던 회화의 양식을 뛰어넘는 입체적인 회화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 먼 클론들의 군상은 황폐한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상을 예견하는 듯 섬뜩하기까지 하다.

소외된 이들의 ‘얼굴’에서 ‘시대’를 보다

안창홍의 작품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재는 바로 인간의 얼굴이다. 그는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얼굴을 그리고 또 그렸다.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광기어린 얼굴부터 그들에게 유린당하며 절규하는 얼굴까지. 무심하게 줄지어 선 단체사진 속 갈가리 찢겨있는 얼굴부터,

위 · 〈뜰(슬픈 여름)〉 캔버스에 유채
97×194cm 2014
아래 · 〈위험한 놀이〉 종이에
파스텔 109.5×79.5cm 1983
왼쪽 페이지 · 〈눈먼 자들〉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릭
213×117×110cm 2016

이전 페이지 · 〈가면〉
합성수지 위에 아크릴릭
155×110×50cm(각) 2016



눈이 모조리 감기거나 사이보그의 텅 빈 눈을 단 얼굴군상까지. 푸르스름한 알몸을 맞댄 남녀의 서늘한 얼굴부터, 작가의 작업실 한 가운데 불편한 자세로 누운 채 뻗뻗하게 눈을 치켜뜬 누드모델의 얼굴까지. 화가의 손에 의해 각기 다른 시간 속에 붙들린 이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진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안창홍이 그려낸 입체적 얼굴은 역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작가가 1970년대 후반부터 생애를 걸고 천착해온 〈아리랑〉 연작과도 깊숙이 연관된다. 〈아리랑〉은 〈기념촬영〉과 〈가족사진〉으로 시작한 사진기반의 회화작업이다. “나의 어릴 적 가족사진을 회화로 옮겨 그리면서 그 속에 내포된 지난한 우리의 역사를 발견했다. 승리한 자, 가진 자, 기득권자, 권력자들의 역사를 일궈내기 위해 희생당한 이들의 역사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다. 내 그림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차원적 사진 속에 묻혀있는 아픔을 3차원으로 끌어내고자 그 얼굴들 위에 핏줄을 그려넣고, 시대의 진통을 오버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눈먼 자들〉 연작이 선보인 각각의 두상도 다르지 않다. “보라색 얼굴 위에 빨간 선이 사방으로 그려진 두상은 디지털 문명세계에 경도된 인간을 상징한다. 항공기 운항부터 전자 연락망까지 모든 것이 선으로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속도와 선들의 비정함을 생각하며, 이 선이 우리의 살갓을 찢고 문신처럼 새겨져 또 하나의 핏줄이 되어버린 모습을 그렸다.” 황금색 두상 위에 바코드가 뒤덮인 두상은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분노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한 미안함을 동시에 담아 애도하는 추모비다.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사람도 (스펙에 따라) 바코드화된 환경 속에서 망각해서는 안 될 시대적 상처를 새겨넣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안중근 의사의 참형일자, 김구 선생의 암살일자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연도와 시간을 숫자로 기록했다.”

〈눈먼 자들〉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두상의 각진 골격과 딱딱 민 머리, 메마른 입술을 굳게 다문 모습이 전형적인 남성성을 떠올린다면, 곡선적인 이목구비를 갖추고 일렐로 도열한 〈가면〉은 눈매와 입매를 화려한 색조로 한껏 치장한 여성의 얼굴같이 보인다. 산산 조각난 얼굴을 이어붙인 형태가 회화 〈부서진 얼굴〉(2008)의 이미지도 떠올린다. 작가는 가면무도회의 소품 용도로 제작된 대형조형물을 구한 다음, 이것을 복제한 결과물을 이리저리 잘라서 재조합했다. 멀리서 보면 다 같은 가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조각낸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달라 개별성을 띤다. “한밤중에 불켜진 쇼윈도 속 마네킹 같다고나 할까.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락과 음모와 배신 등 인간의 온갖 속물적 특성을 담았다.”

빛과 어둠, 가면의 앞과 뒤

안창홍의 작업에서 가면이란 소재는 〈위험한 놀이〉(1983~85), 〈가족사진〉(1982) 등 초기작품에서부터 빈번하게 나타난다. 작가는 종이부조 〈가면들〉(1986)을 만든 적도 있다. 그는 가면에 대해







위, 이전 페이지 · 안창홍 개인전
《눈먼 자들》 전시전경 2017 부산
조현화랑
아래 · 〈가족사진 3〉 종이에 유채
115×76cm 1982



“예부터 제의에서 주술적 목적으로 쓰인 도구다. 주술을 통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결국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반영한다”고 정의한다. “내가 만든 가면의 밝고 현란한 색상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온갖 사물들에게서 차용해온 것이다. 알록달록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치장하고 우리를 매혹시키는 제품들 말이다.” 이 새롭고 멋진 상품은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지만, 이 욕망이란 밀빠진 독 같아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허무한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안창홍의 가면은 밝은 외양 뒤에 우울함을 숨기고 있는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초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화려하게 치장한 얼굴과 상반되게 검은색 눈물을 줄줄 쏟아내는 그의 〈가면(검은 눈물)〉이 그렇다.

작가는 “인간은 불구의 영혼이다. 부조리한 우리 사회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말한다. 그는 ‘나는 화가라서 행복한가?’란 제목의 작업노트(2016)에서도 “절름발이 영혼을 품에 안고 아득한 통로 저 끝, 희미한 불빛을 향해 나아가는 일 (...) 희망의 빛이든, 절망의 빛이든 저승길을 비추는 빛이든, 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일. 내가, 미술이라는 수단을 내 삶을 건져 올리는 도구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 불구의 영혼이 지금까지 온전할 수나 있었을까?”라고 썼다.

결국 작가는 ‘불구(不具)’의 영혼을 입체화해냄으로써 불안한 시대에 돌연변이처럼 우뚝 선 ‘불굴(不屈)’의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빛에 상반되는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고독해진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야 할 회화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한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인간의 삶을 노래할 때 반드시 비극을 이야기했다. 비극 속에 인간의 어두운 면을 속속들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화려함과 비참함이 만나서 만드는 스파크가 내 예술의 힘이다.”